2025, 10, 14

LG 에너지솔루션 373220

3Q25P 작정실적 점검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6454-4867 wooho.rho@meritz.co.kr

3Q25P Review

전일 LG에너지솔루션은 3Q25P 잠정실적을 발표함. 매출액 5.6조원(+2.4% QoQ), 영업이익 6,013억원(+22.2% QoQ, AMPC 3,655억원 포함)의 영업실 적을 발표, 최근 중국산 배터리 관세압박 및 동사의 ESS 출하량 증가 기대감에 상승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킨 무난한 실적

2025년 분기별 AMPC 반영금액은 1Q25 4,577억원, 2Q25 4,908억원, 3Q25P 3,655억원으로 감소 중. 당분기 반영된 AMPC 금액은 배터리 출하량 환산 기준 7~8Gwh 규모로 추정. 미국 시장 IRA 30D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폐지 직전 올 상반기에 발생한 고객사별 Pull-in Demand 특이사항 소멸, 되려 보조금 폐지에 따른 북미 시장 EV 수요 감소 우려가 현실화. 반면 ESS부문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분기별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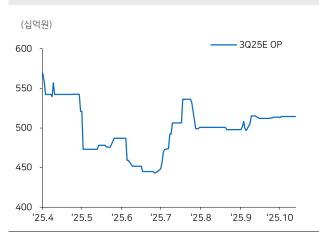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정 Breakdown: 중대형 3.96조원, 소형 1.74조원. [소형 전지] 원통형부문 1.57조원: 주요 고객사 Tesla의 중국 및 독일 기가팩토리 및 Model Y 침투율 증가에 분기별 출하량 증가 중, [중대형 전지] EV배터리 3.12 조원: 완만해진 광물가격 약세에 부정적 래깅효과 적은 편, 그럼에도 예상을 하회한 전방수요에 따른 저율 가동 장기화 조짐에 과잉Capa 우려 상존, ESS 8,398억원: 미시건 홀랜드 공장 가동률 상승에 영업 레버리지 발생하며 당분간 영업실적 개선 동인

View

연간으로 형성된 긍정적 센티먼트(미-중 관세 갈등의 반사수혜 및 단기 영업실적 저점 확인)와 ESS 성장성은 명확함. 그럼에도 2025년 이차전지 산업에 비관적 전망 유지함. 시장 예상치를 지속 하향시킬 북미/유럽 전기차부문 배터리출하 부진은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전방 수요에 기반한 뚜렷한 생산설비 가동률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동사를 비롯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 투자 비중확대라는 낙관적 의견 제시하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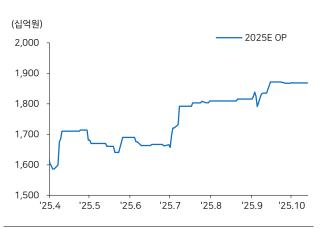
Issue Comment LG에너지솔루션 (373220)

그림1 LG에너지솔루션 3Q25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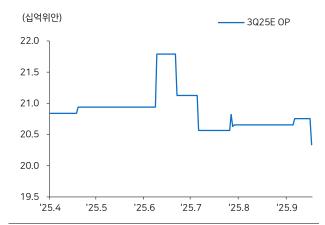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LG에너지솔루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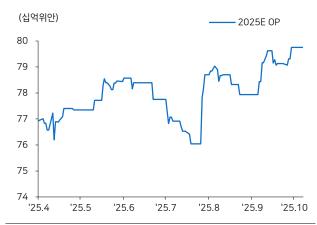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CATL 3Q25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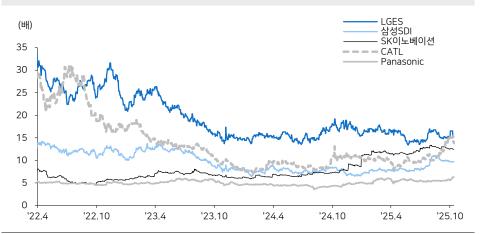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CATL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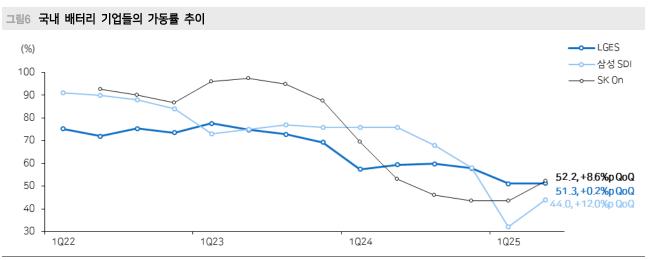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EV/EBITDA 추이



주: CATL은 선전 거래소 기준값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LG에너지솔루션 (373220) **Issue Comment**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 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 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